

성고정관념 내용에 대한 '진실의 핵' 논쟁의 통합적 고찰 : 역할맥락화 관점을 중심으로

이해경*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고정관념 내용의 사실적 근거에 대한 논쟁('진실의 핵' 논쟁)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시도되었다. 역할맥락화가설에 따르면 성고정관념의 내용은 남편-아내 역할관계에서 오는 역할기대를 개인의 판단준거로 삼아 상대의 특성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남편-아내 역할관계에서는 남녀의 특성을 성고정관념(남자-주도특성, 여자-친화특성)으로 지각하는 것은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역할맥락화가 고정관념의 내용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역할맥락화가 되면 역할기대를 개인의 판단준거로 삼을 것이라는 가설과, 역할맥락화가 되면 역할기대와 일치된 특성을 더 선택적으로 추론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 역할을 부여한 성역할맥락화조건과 주인공과 노예역할을 부여한 인종역할맥락화조건을 각각 조작하였다. 이들 조건에서 내외집단구성원에 대한 특성을 추론하게 함으로써 성고정관념 혹은 인종고정관념과 관련된 내용을 측정하였고 인상판단을 통해 역할기대를 각각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설정된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첫째, 역할맥락화조건에 따라 역할기대를 판단준거로 삼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즉,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주도성 혹은 친화성을 판단준거로 삼고, 인종맥락화조건에서는 근면성 혹은 배려성을 판단준거로 삼았다. 둘째, 역할맥락화조건에 따라 대상의 특성을 역할기대와 일치되게 추론하는 경향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는 성, 인종, 국가, 민족에 따라 다양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이런 고정관념은 내집단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이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중 일부를 논점을 달리하여 수정, 보완된 것입니다. 이 연구의 기본

아이디어를 주신 故 이수원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이 글을 바칩니다.

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편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회적 갈등의 한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의 내용이 실제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시도되었다.

일찌기 사회심리학에서는 고정관념을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성립시킨 Lippman(1922)의 첫 연구 이래로 고정관념이 주요한 연구주제중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사회심리학에서 다루어진 고정관념의 내용과 그 기원에 관심을 둔 내용기원(content origin)연구와 고정관념이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을 밝히는데 관심을 둔 과정(process)연구들로 분류될 수 있다(Oakes, Haslam, & Turner, 1994).

고정관념에 관한 초기 연구들(1930년대~1950년대)은 주로 내용기원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실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고정관념의 내용이 어디에서 기원하였는지 밝히려 하였으며, 또한 그 내용이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를 논쟁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고정관념 내용에 있어서 사실적 근거에 관한 논쟁의 시발점은 1933년에 이루어진 Katz와 Braly연구에서 었다.

Katz와 Braly(1933)는 고정관념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 또한 고정관념과 편견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린스턴 대학생 피험자들에게 84개의 특성 형용사를 주고 특정 인종집단의 가장 대표적 특성 10개를 각각 고르게 하였다. 선정된 10개의 특성중 다시 최종 2개의 특성을 고르게 하여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내용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피험자들의 반응에서 인종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예, '흑인들은 게으르다')이 75%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 결과에서 인종집단에 대한 이런 일치 반응은 특정 집단 사람들에 대한 개별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적허구(public fiction)라고 간주하였으며, 따라서 고정

관념의 내용은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Katz와 Braly(1933)의 연구 이후로 고정관념의 내용이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를 논쟁하는 '진실의 핵'(kernel of truth)논쟁은 본격화되었고 이런 논쟁은 과정연구들로 고정관념의 연구 패러다임이 전환된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Oakes, Haslam, & Turner, 1994). 따라서 고정관념의 연구 패러다임이 내용연구에서 과정연구(1960년대 이후에서 최근까지)로 전환하게 되면서 사실적 근거 논쟁 또한 최근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논쟁은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Eagly와 Steffan(1984)의 연구와 이에 대해 반박하는 Hoffman과 Hurst(1990)의 연구로 인해 다시 제기되었다(Oakes, Haslam, & Turner, 1994)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고정관념과 편견은 사회내에서 집단간 실제(actual) 차이를 관찰한 결과이거나 매스 미디어, 학교, 부모, 준거집단으로부터 일어난 사회적 영향에 근거한다는 것이다(Eagly, 1987; Eagly & Steffan, 1984; Michael, Teresa, & Lauren, 1996). Eagly와 Steffan(1984) 또한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전통적으로 남녀의 사회적 역할의 관찰에서 기원한 것으로 본다. 즉, 전통적으로 남자는 가정외에서 직업인의 역할을, 여자는 가정내에서 주부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런 역할수행 과정에서 남자는 '주도적(agentic) 특성¹⁾(예, 적극적이다)이 관찰되었고 여자는 '친화적(communal)특성²⁾(예, 부드럽다)이 관찰된 것이

1) 주도적 특성 : '성취지향적인', '적극적인', '독립적인', '결단력있는', '공격적인', '도전적인' 등과 같은 성격특성들을 말한다. 이들 특성들을 '남성적 특성'으로 명명한 연구들(정진경, 1987; 김태준과 이수원, 1996)과 '기능적 특성'으로 명명한 연구들(김태준과 이수원, 1994; 이해경과 이수원, 1994; 1996; 1998)이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원어 'agency'의 의미를 주도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들 특성들을 '주도적 특성' 혹은 '주도특성'으로 명명하였다.

2) 친화적 특성 : '따뜻한', '부드러운', '이해심이 많은', '자상한', '섬세한', '다정다감한' 등과 같은 성격특성들을 말한다. 이들 특성들은 '여성적 특성'으로 명명한 연구들(정진경, 1987;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남녀의 직업역할이 달라지면 이에 따라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 내용 또한 변화할 것으로 보았다. 이런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남성적 직업(예, 관리인) 혹은 여성적 직업(예, 가정주부)을 가진 남녀를 묘사한 시나리오를 읽게 하여 사회적 역할관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시나리오에는 남녀의 성별과 그들의 직업역할이 일치된 조건(예, 남자-관리인, 여자-가정주부)과 불일치되는 조건(예, 남자-가정주부, 여자-관리인)이 있었다. 그런 후, 피험자들에게 시나리오에 나타난 남녀의 특성을 주도와 친화특성차원에서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남녀의 성별과 일치된 직업역할을 관찰하게 한 조건에서는 성고정관념으로 남녀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일치된 직업역할을 관찰하게 한 조건에서는 성고정관념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즉, 가정주부 남자에 대해서는 주도적 특성보다 친화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관리인을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친화적 특성보다 주도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같은 관리인의 직업을 가진 남녀를 판단하게 하였을 때에는 남자 관리자에 비해 여자 관리자에 대해 더 주도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예상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따라서 Eagly와 Steffan(1984)은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남녀의 사회적 역할의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흑인 혹은 유태인에 대한 고정관념 내용이 과거 그들이 맡아온 사회적 역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관점과 일관된 것이다(Smedley & Bayton, 1978).

그러나 Hoffman과 Hurst(1990)는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나 사회적으로 다른 역할을 맡게 된 이유를 단지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이들의 주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먼저 피험자들에게 가상적 상황에서 남자 혹은 여자와 같은 성범주를 사용하는 대신에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이라는 두 개의 가상범주들을 사용하였다. 이들 가상범주의 구성원들(각각 15명)에 대해 기술한 시나리오 - 한 범주(예, 오리엔탈족 - 남성유사범주)에 속한 구성원들의 80%는 도시근로자, 20%는 가사 노동자인 경우이고, 다른 범주(예, 아르크족 - 여성유사범주)에 속한 구성원들의 80%는 가사노동자, 20%는 도시근로자인 경우 - 를 읽게 하여 두 범주의 역할분포를 관찰하게 하였다. 여기서 두가지 실험 조건에서 차이가 있었다. 첫째, 두 범주의 구성원들이 생물학적으로 전혀 다른 종족이라고 설명한 경우(생물학적 차이 조건)와 같은 종족이라고 설명한 경우(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조건)가 있었다. 둘째, 두 범주의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직업역할을 가지게 된 이유를 피험자 스스로가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 경우(합리화 기회 제공 조건)와 설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합리화 기회 비제공 조건)가 있었다. 그런 후, 피험자들에게 이들 시나리오에 나오는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 구성원들의 성격특성을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직업역할을 명세한 경우에도 역할범주(남성유사범주, 여성유사범주)에 근거한 고정관념이 나타났다. 즉, 남성유사범주의 아동양육자 인물에 대해서는 친화적이기 보다 주도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여성유사범주의 도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도적이기 보다 친화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Eagly와 Steffan(1984)의 연구결과에서 직업역할에 따라 남녀의 특성을 주

김태준, 1996)과 '친화적 특성'으로 명명한 연구들(김태준과 이수원, 1994; 이해경과 이수원, 1994; 1996; 1998)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명칭에 따라 이들 특성들을 '친화적 특성', 혹은 '친화특성'으로 명명하였다.

도와 친화특성으로 판단한다는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둘째, 가장 강력한 고정관념은 두 범주의 생물학적 차이가 없을 조건보다 있는 조건에서, 또한 합리화의 기회가 없는 조건보다 합리화 기회가 있는 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Hoffman과 Hurst(1990)는 이런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성고정관념은 남녀의 사회적 역할의 분배나 생물학적 차이를 단지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성고정관념의 내용은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볼 때 Eagly와 Steffan(1984)는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Hoffman와 Hurst(1990)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성고정관념의 내용은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사실적 근거의 논쟁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견해에 대해 해결점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근거에 대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Eagly와 Steffan(1984)은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에서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기원한 것으로 주장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한가지 의문점은 왜 남녀가 가진 많은 역할특성중 남자에 대해서는 주도특성만이 선택적으로 관찰되고, 여자에 대해서는 친화특성만이 선택적으로 관찰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왜 남녀의 역할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특정 특성만이 선택적으로 관찰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 즉, 남편과 아내와 같은 특정 역할관계에서 몰입하여 내집단원이 외집단원의 특성을 지각할 때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주도특성과 친화특성)이 지각될 것으로 보았다.

왜 특정 역할에 몰입하여 상대를 지각하게 되면 고정관념이 나타나게 되는가? 사회에는 남편과 아내, 주인과 하인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이

존재한다. 이들 역할에는 역할관계에서 추구되어야 할 상호작용목표나 역할기대(Hilton & Darly, 1991)가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역할기대(role expectation)란, 주어인 역할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는 일종의 규범적 기대를 말한다. 이런 역할기대는 사회구성원들간의 합의의 산물로서 이를 어길 때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이런 역할기대는 역할점유자와 역할파트너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상호작용목표(interaction goal)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상호작용목표란 개인들이 추구하는 목표, 요구 또는 기대를 말한다. 상호작용목표를 처음으로 개념화한 Jones와 Thibaut(1958)는 사람들이 상호작용과정에서 갖는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는 자신이 선호 혹은 배척하는 가치를 역할파트너가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가치유지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특정 역할관계에 놓이게 되면 역할기대나 상호작용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타인을 판단하는 준거 또한 역할기대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사회적 역할에 따라 개인의 판단준거가 달라진다는 연구들은 다양하게 보고되어 왔다. 성역할 지각발달의 연구에서 볼 때 남여에 따라 판단준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는 주도성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 반면에 여자는 친화성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준, 1996; 이해경과 이수원, 1994, 1996). 학교장면에서 선배 역할자들은 '기강가치'(예, 질서있다)를 판단준거로 삼는 반면에 후배 역할자들은 '인격 가치'(예, 인간적이다)를 판단준거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원과 김태준, 1990). 또한 Katz와 Hass(1988)의 흑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백인은 '프로테스탄트 윤리'(Protestant ethics)(예, 근면하다)를 판단준거로 삼는 반면에 흑인은 '평등주의'(egalitarianism)(예, 평등하다)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결과들에서 볼 때 개인이 처한 역할이나 입장에 따라 개인의 판단준거 또한 다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경과 이수원(1996)은 성범주가 강조되면 개인의 판단준거가 주도성 혹은 친화성 가치가 개인의 판단준거가 되고 이런 판단준거가 남녀에 대한 성고정관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이들은 Gaertner와 동료들(1989)의 연구방법에 따라 남녀 피험자들을 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성범주화), 남녀집단이 상호 경쟁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범주화조건과 성범주화 후, 집단성원들간이 상호 협동하게 한 재범주화조건으로 각각 처치하였다. 여기서 재범주화조건에 비해 범주화조건은 성범주가 강조되는 조건을 말한다.

연구결과에서 첫째, 재범주화조건에 비해 범주화조건에서는 남자는 친화성보다 주도성을 판단준거로 삼는 반면에 여자는 주도성보다 친화성을 판단준거로 삼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성범주가 강조될 때에는 남녀 내집단에서 추구되는 가치를 개인의 판단준거로 삼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재범주화조건에 비해 범주화조건에서는 성고정관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주도성 가치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친화성 가치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능성 가치와 친화성 가치가 남녀에 대한 성고정관념과의 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이해경과 이수원, 1996)는 성범주가 강조될 때 주도성 혹은 친화성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게 되고 이들 준거가 남녀 성고정관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특정 역할 부여에 따라 성고정관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해경과 이수원(1996)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남녀 대상에 대해 남편과 아내라는 특정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남녀 성범주가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성범주에서 추구되는 역

할기대를 개인의 판단준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할관계에서 오는 역할기대를 개인의 판단준거로 삼아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특정 역할관계에 맥락화(contextualization)된 지각(이수원, 1994)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역할에 맥락화되면 타인의 특성 지각에 있어서도 역할기대와 일치된 특성을 선택적으로 지각, 추론할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따뜻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친화성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가진 수많은 특성중 '부드럽다'는 특성(친화적 특성)을 선택적으로 지각할 것이다. 한편 아내는 남편에게 적극적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주도성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남성이 가진 특성중 주도특성을 선택적으로 지각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역할에서 오는 역할기대로 대상의 특성을 선택적으로 지각된 것이 남녀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흑인과 백인에 대한 인종 고정관념 또한 그들이 과거 맡아온 사회적 역할 즉, 주인과 노예 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인은 노예를 볼 때 근면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근면성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주인은 노예의 특성을 '게으르다'(비근면성 특성)로 지각할 것이다. 반면에 노예는 주인을 볼 때 인간적인 대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인간가치' 혹은 '배려가치'를 판단준거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노예는 주인의 특성을 '냉혹하다'로 지각할 것이다. 따라서 주인과 노예 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이 흑인과 백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특정 역할관계에서 역할기대에 따라 대상의 특성을 지각한 고정관념의 내용은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역할관계에서 벗어나 대상의 특성을 지각할 때에는 역할

기대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의 특성에 대한 지각내용 또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성고정관념은 남편과 아내역할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역할관계에서(예를 들어, 학생과 교사) 남녀의 특성을 주도성 혹은 친화성으로 지각하는 것은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고정관념은 남편과 아내라는 특정 역할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에서 볼 때에는 사실적 근거가 있는 반면에 다른 역할관계에서 볼 때에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고정관념이란, 특정 역할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관계에서도 남녀의 특성을 항상 남자는 주도적인 것으로, 여자는 친화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남녀의 특성을 항상 고정적인 특성으로 본다는 것은 그 특성을 남녀가 가진 성향(disposition)으로 볼 때 가능한 것이다.

왜 특정 역할관계에서 보여진 대상의 특성을 남녀의 개인 성향으로 지각하게 되는가? 남편과 아내, 주인과 노예와 같은 상호 반대의 역할로 규정되는 관계에서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역할로 동일시하게 된다(Tajfel & Turner, 1986). 예를 들어, '나는 남편이다'로 동일시하게 되면 상대 또한 '너는 아내다'로 동일시하게 된다. 역할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곧 개인으로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역할행동 또한 개인의 의지 혹은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의 역할행동 또한 개인의 성향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이수원(1994)은 자신의 역할행동을 개인 성향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 또한 개인성향으로 투사하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자아중심성(social egocentrism)'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특정 역할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회적 자아중심성으로 인해 역할행동이 개인성향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할관계가 변화되어도 남녀의 특성은 항상 고정적인 특성으로 지각하는 고정관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고정관념은 특정 역

할관계에 몰입되어 자신이 역할상대를 특정한 역할기대에 따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데서 야기되는 지각적 오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고정관념'과 '흑백 인종고정관념'을 주제로 삼아 특정 고정관념의 내용이 특정 역할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에서 실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성고정관념은 남편과 아내 역할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종고정관념은 주인과 노예 역할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편과 아내역할을 부여하여 성역할에 맥락화된 조건(성역할맥락화조건)과 주인과 노예역할을 부여하여 인종역할에 맥락화된 조건(인종역할맥락화조건)으로 조작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두 개의 가상범주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Hoffman과 Hurst(1990)는 실제 '오리엔탈'과 '아르크'라는 가상의 범주를 사용하여 남자, 여자와 같은 기존의 범주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오염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 자극 대상의 특성이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유사할 경우에는 성도식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남녀와 같이 신체적 특징이 뚜렷이 차이가 있는 자극 대신에 중립적 특성을 가진 가상인물들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들의 연구방법을 응용하여 기존의 성범주와 자극인물의 특성에 따른 성도식의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도 역할부여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만약 가상의 범주에 특정 역할을 부여하였을 때에도 대상의 특성추론에서 고정관념의 내용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역할 부여에 따른 효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을 하였을 때, 역할기대가 고정관념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특정 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을 하게 되면 역할기대를 판단준거로 삼을 것이라는 가설과 둘째 역할기대가 타인의 특성을 판단할 때 역할기대와 일치된 특성을 선택적으로 추론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런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성역할맥락화조건과 인종역할맥락화조건으로 각각 조작하고 역할관계 조작에 따라 판단자의 판단준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 판단준거의 변화에 따라 특성추론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피험자

한양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중 282명이 참여하였다. 실험참가는 심리학 수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실험참가 신청을 받아 이루어졌다. 참가신청자에 한해 2개의 실험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최종분석대상자는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145명(남자 73명, 여자 72명)이 참가하였고 인종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137명(남자 70명, 여자 67명)이었다. 이들중 불성실 응답자 9명을 제외한 273명(성역할맥락화조건 145명, 인종역할맥락화조건 128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설 계

이 연구에서는 가상범주에 남편과 아내역할을 부여한 성역할맥락화조건, 주인과 노예역할을 부여한 인종역할맥락화조건이 있었다. 각 조건내에는 두 개의 역할범주(2: 성역할맥락화조건은 남편역할과 아내역할, 인종역할맥락화조건은 주인역할과 노예역할)와 피험자 성별(2)에 따른 조건이 있었다.

독립변인 처치

피험자들이 대형 강의실에 모이면 가상장면에서 '인물추리게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실험목적을 소개하였다. 실험목적을 소개한 뒤 실험조건에 따라 4종류의 시나리오와 지시문이 함께 인쇄된 유인물을 각 조건에 따라 배부하고 이를 각각 읽게 하여 독립변인 처치를 하였다.

독립변인 처치를 위한 1단계에서는 모든 조건의 피험자들을 가상의 장면(외계의 혹성)에서 오리엔탈족이라는 가상의 범주에 할당하고 그들의 반대 역할자들을 아르크족 범주에 할당하였다. 특정 범주에 할당하기 위해 사용된 1단계의 시나리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당신은 '인물추리게임'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당신은 가상상황에서 당신에게 험까지 역할이 주어지고 주어진 이 역할에서 당신과 같은 역할 혹은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의 특성을 추리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특히 주어진 당신의 역할에서 상대를 판단하면 더욱 정확한 추리가 가능합니다. 아내 상황 설명을 잘 읽어 보시고 설명에 따라 게임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서기 2045년 지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로 몇 개의 다른 혹성을 찾아 이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신은 이번자중의 항사장으로 우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승 탑사하면 중이 특성태현대는 갑작스런 기관고장으로 안드로메다의 한 벽에 복시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벽의 이름은 '수메르'입니다. 이 벽에는 몇알라 성격, 호르몬체계가 서로 생물학적으로 다른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이사는 두 종족이 종족별로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이벽에 복시착한 지구이주민들은 이곳의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중에서도 오리엔탈족이 사는 지역에 정착한 지구 이주민중의 항사장입니다.

실제 피험자 모두는 시나리오에서 오리엔탈족이 사는 지역에 정착한 지구이주민으로 묘사하고 반면에 반대역할을 하는 집단은 아르크족으로 묘사하여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의 가상범주할당에서의 차이를 통제하였다.

그런 뒤 각 조건별 가상범주에 역할을 달리 부여하여 역할맥락을 달리 조작하였다. 먼저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각각 남편 혹은 아내 역할로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 두 종족이 통합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은 결혼이었고 결혼 후, 오리엔탈족은 지구에서 말하는 남편의

역할을, 아르크족은 아내의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하여 남편역할을 처치하였다(남편역할조건). 반대로 아내역할조건에서는 오리엔탈족은 아내의 역할을 맡게 되고 아르크족은 남편의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하여 아내역할을 처치하였다(아내역할조건). 인종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주인 혹은 노예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주인역할조건에서는 두 종족이 통합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은 전쟁이었고 전쟁에서 이긴 오리엔탈족은 주인으로, 전쟁에서 패한 아르크족은 노예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여 주인역할을 부여하였다(주인역할조건). 노예역할조건에서는 전쟁에서 진 오리엔탈족은 노예로, 전쟁에서 이긴 아르크족은 주인이 되어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여 노예역할을 부여하였다(노예역할조건).

둘째, 특정 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을 하도록 처치하기 위해 두 종족의 통합을 위한 '만남의 장'에서 두 종족이 만나게 될 것을 예견시켰다.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배우자 선택을 위한 것이며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인물파악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여 성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을 하도록 처치하였다. 인종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만남의 장'의 목적이 주인과 노예를 상호 선택하기 위한 것이며 상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물파악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여 주인 혹은 노예의 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을 하도록 처치하였다. 실제 역할부여와 역할맥락화된 지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2단계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성역할맥락화조건, 남편역할조건).

과거 핵전쟁이 난 이후로 두 종족은 방사능 오염이 안된 지역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별의 대기환경의 변화와 오염지역의 확대로 두 종족의 통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구에서 처럼 생물학적인 남녀 성이 없기 때문에 성에 따라 결혼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단지 두 종족의 통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최소

화하기 위해 이들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통합을 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결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이 각각 1:1 부부관계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은 상호 배우자 1명을 선택해야 하며 그 인물과 같은 주거지내에서 부부로 상아야 합니다. 두 종족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결혼 후, 오리엔탈족은 지구에서 말하는 남편의 역할을, 아르크족은 아내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오리엔탈족의 한 인물로서 통합 후 남편의 역할을 맡게 되며, 따라서 당신의 아내가 될 한 사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종족의 대표들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상호준비를 위해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역할은 '만남의 장'에 참여하는 오리엔탈족 남편 대표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 대표자로서 명찰을 하나씩 받기 바랍니다. (오리엔탈족 -남편대표 1번).

곧 당신과 같은 오리엔탈족 대표들이 모이면 아르크족 대표들과 당신의 배우자 선택능력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를 간 선택하게 되면 앞으로 당신의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 자체가 불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만남에 앞서 당신의 인물판단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인물추리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게임점수는 당신의 게임점수로 환산될 예정입니다.

셋째, 주어진 역할에 몰입시키기 위해 먼저 각각의 역할에서 해야 할 일들을 5가지씩 적게 하였다. 성역할맥락화 조건과 인종역할 맥락화조건 모두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이 통합을 한 후, 각각 해야 할 행동 혹은 일을 항목으로 각각 5가지씩 적게 하였다.

넷째, 역할몰입처치 후, 상대 종족(아르크족)의

인물 4명을 인물화와 함께 제시하고 이들중 한명을 선택하여 선택한 인물의 번호를 기입하게 하였다. 성역할맥락화조건인 남편역할조건에서는 제시된 4명의 인물을 아르크족의 아내후보자들, 아내역할조건에서는 남편 후보자들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인종역할맥락화조건인 주인역할조건에서는 아르크족의 노예 후보자들로, 노예역할조건에서는 주인후보자들인 것으로 각각 제시되었다.

절 차

피험자들이 실험참가 시간에 따라 대형 강의실에 모이면 실험목적과 가상장면에서 '인물추리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하였다. 실험목적과 소개한 뒤 실험조건에 따라 4종류의 시나리오와 지시문이 함께 인쇄된 유인물을 각 조건에 따라 배부하고 이를 각각 읽게 하여 독립변인 처치를 하였다.

독립변인 처치가 끝나면 각각의 역할에서 해야 할 일을 5가지씩 적게 하여 역할몰입처치를 한 뒤, 2단계에 걸쳐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특성추론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오리엔탈족이 상대 역할자인 아르크족에 대한 4명에 대해 각 인물당 2개씩 총 8개의 특성을 선택하게 하였다. 특성추론에 사용된 특성들은 표 1에 제시된 60개의 형용사들중에서 이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성들을 2가지씩을 선택하여 그 형용사의 번호를 적게 하였다. 그런 후, 선택된 8개의 특성 중 인물4명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성 2개를 다시 선택하여 그 번호를 적게 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인의 측정은 피험자들에게 판단 근거의 측정을 위해 인상판단을 하도록 하여 이루어졌다. 인상판단은 특성추론과정이 약 10분에 걸쳐 끝나면 인물추리게임 1이 끝났다고 설명하고 실험처치를 위해 주어졌던 지시문과 질문지를 회수한 후, 게임 2의 시작을 위해 두번째 질문지

를 배부하면서 이루어졌다. 질문지에서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의 인상을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과 흑백인종고정관념에 관련된 특성들을 의미분척도로 제작하고 이를 9점척도에서 인상을 판단하게 하였다. 인상판단에 걸린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전체 실험을 위해 사용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그런 후, 게임 2를 위해 나누어주었던 두 번째 질문지를 회수하고 실험을 위해 위장했던 것에 대해 사과, 해명하였다.

실험재료

각 조건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먼저 피험자들을 가상범주에 할당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가상범주는 Hoffman과 Hurst(1990)가 사용한 방법을 응용하여 가상의 세계에 사는 오리엔탈 종족과 아르크 종족으로 묘사하고 각각의 조건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였다.

역할처치 후, 상대 역할자들중 한면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피험자들을 모든 조건에서 오리엔탈족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묘사하였고 인물을 판단하는 대상은 아르크족의 인물로 묘사되어 제시되었다. 아르크족의 인물은 인물 1번에서 4번까지 4명의 인물화 형태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4명의 인물화는 각 인물의 얼굴특징을 생략한 인물화(머리모양, 얼굴윤곽, 귀모양, 목, 어깨선)로 가로 2.5cm, 세로 2.5cm의 사각형안에 얼굴 윤곽, 머리모양, 어깨, 목선, 귀를 그린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얼굴의 세부특징(눈, 코, 입)은 생략된 형태였다. 이들 인물화의 특징에서 가상의 장면에서 가상의 인물로 묘사하기 위해 귀모양이 위쪽이 뾰족한 형태(당나귀 귀)의 형태로 제작되었고 또한 대상인물의 특징에서 오는 성도식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신체적 특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이 없는 중립적인 특성을 가진 인물들로 제작되었다. 이들 자극인물들은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였다. 이들 4명의 인물에 대해 성격특성을 추

표 1. 특성추론을 위해 제시된 성격특성 형용사 목록들

문항번호	중립특성	성역할(남편-아내)관련특성				인종역할(주인-노예)관련 특성			
		남편관련특성		아내관련특성		주인관련특성		노예관련특성	
		좋은특성(+)	나쁜특성(-)	좋은특성 (+)	나쁜특성(-)	좋은특성(+)	나쁜특성(-)	좋은특성(+)	나쁜특성(-)
1	예술적이다	박력있다	부족하다	상냥하다	박력없다	유능하다	자만하다	충성스럽다	무능하다
2	매혹적이다	배짱있다	덜렁댄다	꼼꼼하다	배짱없다	근면하다	지배적이다	순종적이다	계으르다
3	의식적이다	대범하다	저칠다	부드럽다	소심하다	당당하다	영약하다	순박하다	초라하다
4	창조적이다	과묵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수다스럽다	지혜롭다	냉혹하다	인정있다	무지하다
5	명랑하다	야망있다	둔하다	섬세하다	야망이없다	도전적이다	이기적이다	헌신적이다	안일하다
6	정열적이다	적극적이다	공격적이다	다정다감하다	소극적이다	부유하다	허약하다	강인하다	가난하다
7	사실적이다								
8	상상력이 풍부하다								
9	확실하다								
10	감각적이다								
11	사교적이다								
12	개성있다								

론하기 위해서 성격특성목록을 제시하였다. 실제 특성 추론에서 사용된 60개의 성격특성 목록은 표 1과 같다.

특성추론에 사용된 특성 형용사들은 중립특성 12개, 성역할특성중 남편관련특성과 아내관련특성이 각각 12개, 인종역할특성중 주인관련특성과 노예관련특성이 각각 12개로 총 60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었다. 성역할특성 형용사의 선정기준은 정진경(1987), Hoffman과 Hurst(1990)가 사용한 주도특성과 친화특성을 각각 남편관련특성과 아내관련특성으로 사용하였다. 인종역할특성 형용사는 Filardo(1996)의 흑인과 백인의 인종고정관념의 내용을 조사한 연구에서 백인의 특성을 주인관련특성으로, 흑인의 특성을 노예관련특성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종속변인

특성추론 : 특정 역할관계에 따라 대상의 특성 추론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오리엔탈족의 상대역할자인 아르크족 인물들에 대한 특성을 추론하게 하였다. 특성 추론의 방식은 Katz와 Braly(1933)가 사용한 체크리스트 방식(check list method)에 따랐다. 먼저 아르크족 4명의 인물화를 제시하고 이들의 특성 추론을 위

해 60개의 형용사 목록(표 1)을 제시하였다. 60개의 목록중 4명의 아르크족 인물들의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특성들을 각 인물당 2개씩 먼저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된 문항의 번호를 적게 하였다. 4명의 인물특성으로 선택된 8개 특성중 다시 4명의 인물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성 2개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그 특성의 문항번호를 적게 하였다. 최종 선택된 2개의 형용사를 실험조건에 따라 그 빈도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판단준거 측정 : 역할관계에 따라 판단자의 판단준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특성추론을 위한 첫 번째 설문지를 회수한 후, 두 번째 배부된 설문지에서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에 대한 인상을 판단하게 하였다. 인상판단을 위해 사용된 지시문은 “오리엔탈족(아르크족)의 대표인물중의 1명입니다. 이 인물의 특성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각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였다. 그런 후, 각 역할을 대표하는 인물 1명의 인물화를 각각 제시하고 인상을 판단하게 하였다. 이들 인물들에 대한 인상판단에 사용된 형용사들중 성역할 특성은 정진경(1987)이 추출한 두 요인, 주도특성과 친화특성 형용사와 Hoffman과 Hurst(1990)이 사용한 형용사에서 각각 선별하였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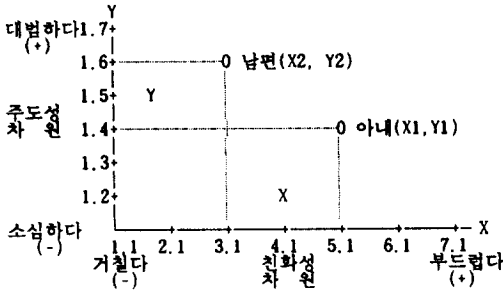


그림 1. 남편/아내역할자에 대한 인상평가의 준거가치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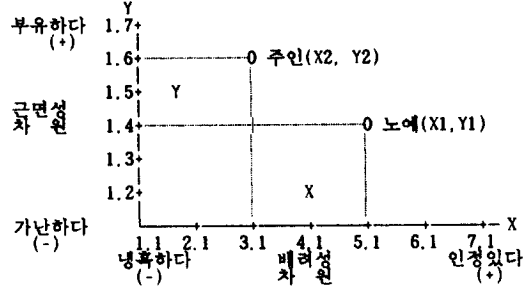


그림 2. 주인/노예역할자에 대한 인상평가의 준거가치차원

도특성문항은 '대범하다-소심하다', '과묵하다-수다스럽다', '야망있다-야망없다', '박력있다-박력없다', '배짱있다-배짱없다', '적극적이다-소극적이다'의 6개의 신념과 친화특성문항은 '부드럽다-거칠다', '다정하다-공격적이다', '상냥하다-무뚝뚝하다', '꼼꼼하다-덜렁댄다', '따뜻하다-차갑다', '섬세하다-둔하다'의 6개의 신념쌍을 사용하였다.

주인-노예역할특성은 흑백인종고정관념 연구(Filardo, 1996)에서 백인과 흑인의 특성으로 추출된 두 요인을 각각 선별하여 의미미분척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백인특성에는 '부유하다-가난하다', '유능하다-무능하다', '근면하다-게으르다', '당당하다-초라하다', '지혜롭다-무지하다', '도전적이다-안일하다'의 6개의 신념쌍을 사용하였다. 흑인특성에는 '순박하다-영악하다', '인정있다-냉혹하다', '충성스럽다-자만하다', '순종적이다-지배적이다', '현신적이다-이기적이다'의 6개의 신념쌍을 사용하였다. 이들 형용사들을 의미미분척도로 제작하고 이를 9점 척도상(-4점에서 +4점까지)에서 판단하게 하였다. 이들 인상판단점수를 기초로 판단준거를 측정하기 위해 준거차원변별값을 산출하였다.

준거가치변별값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들은 요인분석결과에 따랐다. 요인분석결과에서 '대범하다', '야망있다', '적극적이다', '박력있다', '배짱있다'가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상냥하다', '다정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가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를 '주도특성'(eigen

value 8.63)으로, 후자를 '친화특성'(eigen value 4.88)으로 명명하고 이들 문항을 근거로 주도가치와 친화가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부유하다', '유능하다', '지혜롭다', '도전적이다', '당당하다', '근면하다', '강인하다'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이를 '근면특성'(eigen value 7.25)으로 명명하였고, '순종적이다', '충성스럽다', '순박하다', '인정있다', '현신적이다'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이를 '배려특성'(eigen value 3.40)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문항을 근거로 근면가치와 배려가치를 산출하였다.

준거가치변별값의 산출은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방법에 따라 산출하였다. 성역할맥락화 조건에서는 남편과 아내역할 인물의 인상판단에서 각각 주도과 친화차원에서 변별값을 산출하였다(그림 1) 그림 1에서 Y는 남편과 아내인물을 주도성 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X는 친화성 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각 차원의 변별값이 클수록 각 차원에 입각해서 남편과 아내의 인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인종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주인과 노예역할인물의 인상판단에서 각각 근면가치와 배려가치차원에서 변별값을 산출하였다(그림 2). 그림 2에서 Y는 주인과 노예인물을 근면성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X는 배려성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각 차원의 변별값이 클수록 각 차원에 입각해서 주인과 노예의 인상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 준거를 판단준거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결 과

1. 역할맥락에 따른 판단준거의 차이

역할관계의 맥락에 따라 판단준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성역할맥락화 조건에서는 주도/친화차원변별값을 산출하였다(표 2). 주도과 친화변별값은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의 주도성 차원과 친화성 차원에서 판단한 인상 판단 점수를 기초로 산출하였다. 준거차원변별값이 클수록 특정 준거를 판단준거로 삼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성역할맥락조건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판단할 때 친화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 반면에 아내는 남편을 판단할 때 주도가치를 판단준거로 삼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각 실험조건내에서 역할맥락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주도/친화변별값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3원변량분석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을 생략한 평균표(표 2)를 제시하고 각 조건내에서 평균의 차이를 변량분석하였다.

표 2의 평균에 대해 성역할맥락화조건내에서 역할맥락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주도/친화차원변별값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2원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의 주도/친화차원변별값 평균(SD)

실험조건	역할맥락	주도차원변별값	친화차원변별값
성역할맥락화	남편-아내(n=73)	-.13(1.24)	.00(.87)
	아내-남편(n=72)	1.00(1.15)	-.29(1.35)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의 변량분석결과에 따르면 주도/친화가치에 따른 주효과[F(1,143)=6.93, $p<.00$]와 역할×주도/친화가치의 상호작용효과[F(1,143)=9.60, $p<.00$]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에서 볼 때 남편역할자들은 아내역할자들보다 친화가치변별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역할자들은 남편역할자들에 비해 주도가치변별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역할에 맥락화되면 남편은 아내를 판단할 때 친화가치를 판단준거로 삼고 아내는 남편을 판단할 때에는 주도가치를 판단준거로 삼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인종역할맥락화조건에서 판단준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근면/배려차원변별값을 산출하였다(표 3). 가설에 따르면 주인은 근면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 반면에 노예는 배려가치를 판단준거로 삼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3 인종역할맥락화조건에서 근면성/배려성차원 변별값 평균(SD)

실험조건	역할맥락	근면성차원	배려성차원
		변별값	변별값
인종역할맥락화	주인-노예(n=60)	.62(.99)	-.86(1.44)
	노예-주인(n=63)	.15(1.15)	.83(1.23)

표 3의 평균에 대해 역할맥락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근면/배려차원변별값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서 역할에 따른 주효과[F(1,121)=4.11, $p<.04$]와 역할×근면/배려가치의 상호작용효과[F(1,121)=13.58, $p<.00$]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에서 볼 때 주인역할자들은 노예역할자들보다 근면가치변별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노예역할자들은 주인역할자들에 비해 배려가치 변별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종역할맥락화 조건에서 주인은 노예를 판단할 때 근면가치를 판단준거로 삼고 노예는 주인을 판단할 때에는 배려가치를 판단준거로 삼을 것이라는 이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표 4. 실험조건별 특성추론에서 나타난 특성 빈도(%)

순위	성역할맥락화조건		인종역할맥락화조건	
	남편->아내조건	아내->남편조건	주인->노예조건	노예->주인조건
1	다정다감하다 13(17.6)	착실하다 15(20.8)	순종적이다 20(32.3)	부유하다 17(27.4)
2	지혜롭다 12(16.2)	적극적이다 10(13.9)	순박하다 8(12.9)	지배적이다 11(17.7)
3	섬세하다 10(13.5)	다정다감하다 9(12.6)	근면하다 8(12.9)	유능하다 7(11.3)
4	꼼꼼하다 10(13.5)	유능하다 8(11.1)	과묵하다 7(11.3)	냉혹하다 7(11.3)
5	부드럽다 8(10.8)	섬세하다 6(8.3)	착실하다 7(11.3)	차갑다 5(8.1)
6	근면하다 8(10.8)	당당하다 5(6.9)	충성스럽다 7(11.3)	지혜롭다 5(8.1)
7	착실하다 7(9.5)	따뜻하다 5(6.9)	듣는다 5(8.1)	공격적이다 5(8.1)
8	따뜻하다 7(9.5)	상냥하다 5(6.9)	지혜롭다 5(8.1)	적극적이다 4(6.5)
9	인정있다 7(9.5)	인정있다 5(6.9)	인일하다 4(6.5)	영악하다 3(4.8)
10	사교적이다 6(8.1)	아망있다 4(5.6)	개성있다 4(6.5)	게으르다 3(4.8)
11		개성있다 4(5.6)		
12		사교적이다 4(5.6)		
13		명랑하다 4(5.6)		

2. 특성추론

역할관계의 맥락에 따라 인상추론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특성추론 빈도를 산출하였다. 실험조건에 따라 1위에서 60위까지의 순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1위에서 10위까지의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1위와 2위에 선택된 특성들을 표 1의 분류 기준에 따라 남편관련 특성, 아내관련특성, 주인관련특성, 노예관련특성, 중립특성의 기준에서 살펴보았다. 특성추론의 내용에 대한 분석은 2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첫째는 각 조건별로 특성 추론의 빈도가 1위와 2위를 차지한 특성 내용들의 추론빈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고, 둘째는 각 조건별로 10위까지 나타난 특성들의 내용중 관련항목의 개수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성추론의 빈도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특성 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역할맥락화조건중 남편이 아내의 특성을 추론하는 조건(남편-아내조건)에서는 아내관련특성인 '다정다감하다 13(17.6%)'가 1위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중립특성인 '지혜롭다 12(16.2%)'가 2위로 나타났다. 아내가 남편의 특성을 추론하는 조건(아내-남편조건)에서는 중립특성인 '착실하다' 15(20.8%)가 1위로, 남편관련특성

인 '적극적이다 10(13.9%)'가 2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남편-아내조건에서는 아내관련특성인 친화특성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고 아내-남편조건에서는 중립특성이 1위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인종역할맥락화조건중 주인이 노예의 특성을 추론하는 조건(주인-노예조건)에서는 노예관련특성인 '순종적이다 20(13.2%)', '순박하다 8(12.9%)'가 각각 2위로 나타났다. 노예가 주인의 특성을 추론하는 조건(노예-주인조건)에서는 주인관련특성인 '부유하다 12(27.4%)', '지배적이다 11(17.7%)'로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주인-노예조건은 노예관련특성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노예-주인조건에서는 주인관련특성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각 조건별 관련항목의 개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역할맥락화조건중 남편역할 조건(남편-아내조건)에서는 아내관련특성은 '다정다감하다', '섬세하다', '꼼꼼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의 5개로 가장 많았고, 중립특성은 '착실하다', '사교적이다'의 2개로, 주인관련특성은 '지혜롭다', '근면하다'의 2개로, 노예관련특성은 '인정있다'의 1개로 각각 나타났다. 아내역할조건(아내-남편조건)에서 아내관련특성은 '다정다감하다', '섬세하다', '따뜻하다', '상냥하다'의 5개로 가장

많았고, 중립특성은 '착실하다', '개성있다', '사교적이다', '명랑하다'의 4개, 남편관련특성은 '적극적이다', '야망있다'의 2개, 주인관련특성은 '유능하다', '당당하다'의 2개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성역할매락화조건에서 관련항목개수로 볼 때 남편-아내조건에서는 아내관련항목이 가장 많이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고, 아내-남편조건에서는 남편관련특성보다 아내관련특성을 오히려 가장 많이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인종역할매락화조건중 주인역할조건(주인-노예조건)에서 노예관련특성은 '순종적이다', '순박하다', '충성스럽다', '둔하다', '안일하다'의 5개로 가장 많았고, 주인관련특성은 '근면하다', '지혜롭다'의 2개, 남편관련특성은 '과묵하다' 1개, 중립특성은 '착실하다', '개성있다'의 2개로 각각 나타났다. 노예역할조건(노예-주인조건)에서 주인관련특성은 '부유하다', '지배적이다', '유능하다', '냉혹하다', '차갑다', '지혜롭다', '영악하다'의 7개로 가장 많았고, 노예관련특성은 '게으르다'의 1개, 남편관련특성으로는 '적극적이다', '공격적이다'의 2개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인종역할매락화조건에서 관련항목이 개수로 볼 때 주인-노예조건에서는 노예관련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예-주인조건에서는 주인관련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특성추론에서 1위와 2위를 중심으로 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성역할매락화조건중 남편역할자들은 아내역할자의 특성으로 여자의 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인 친화특성으로 추론하는 빈도가 1위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내 역할자들은 남편 역할자의 특성을 남자 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인 주도특성으로 추론하는 빈도가 2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역할매락화조건에서 남편 역할조건에서는 이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는 결과를 얻었고 아내 역할자조건에서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성역할에 매락화된 지각이 성고정관념 내용의 기원일 것이라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인종역할매락화조건에서

주인 역할자들은 노예를 흑인관련특성으로 추론하는 빈도가 1위로 나타났고, 노예 역할자들은 주인을 백인관련특성으로 추론하는 빈도가 1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인과 노예역할관계에 매락화된 지각이 흑인과 백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될 것 가설이 지지되었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특정 역할관계에 매락화된 지각이 고정관념의 내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역할에 따른 판단준거와 특성추론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에 따라 판단자의 판단준거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역할자들은 친화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 반면에 아내 역할자들은 주도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인 역할자들은 근면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 반면에 노예 역할자들은 배려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할에 따라 역할기대를 개인의 판단준거로 삼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둘째, 역할에 따라 상대 역할자에 대한 특성추론의 내용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성추론의 내용은 역할자의 판단준거와 일치되게 나타났다. 성역할매락화조건중에서 남편 역할자들은 상대 역할자의 특성을 여자의 고정관념의 내용이 되는 친화특성(예, 다정하다)으로 추론하였고 아내 역할자들은 남편의 특성을 남자의 고정관념의 내용이 되는 주도특성(예, 적극적이다)으로 추론하였다. 이 조건에서 나타난 특성추론의 내용은 앞서 남편 역할자들이 친화성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고 아내 역할자들이 주도성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 결과와 일치된 것이다.

인종역할매락화조건에서는 주인 역할자들은

노예의 특성을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인 비근면특성(예, 안일하다)으로 추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예 역할자들은 주인의 특성을 백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인 비인간 혹은 비배려 특성(예, 냉정하다)으로 추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건에서 특성추론 내용 또한 주인 역할자들이 근면성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고 노예 역할자들이 배려성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 결과와 일치된 것이다. 따라서 역할매락에 따라 판단준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성추론의 내용 또한 달라지고 역할기대에 따라 대상의 특성을 선택적으로 추론한 것이 특정 고정관념의 내용이 될 것이라는 이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과 아내 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이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나타나고 다른 역할관계에서는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앞서 고정관념의 내용의 기원연구들에서 고정관념의 내용이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를 논한 '진실의 핵'(kernel of truth) 논쟁을 역할매락화 가설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근 '진실의 핵' 논쟁을 다시 제기하게 된 계기가 된 두 주장 즉, Eagly와 Steffan(1984)의 주장과 Hoffman과 Hurst(1990)의 주장은 상호 대립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Eagly와 Steffan(1984)의 주장은 전통적인 남녀의 성역할의 관찰에서 성고정관념이 기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내용이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반면에 Hoffman과 Hurst(1990)의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성고정관념이 사실적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에 관한 논쟁은 두 개의 선행연구들의 입장에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대립된 관점은 특정 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으로 해석될 때 통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성고정관념은 남편과 아내역할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갖는 역할기대에 따라 남녀의 특성을 추론한

것이므로 남편과 아내역할관계에서는 성고정관념의 내용은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역할관계가 아닌 다른 역할관계의 경우에는 남편의 특성을 주도과 친화특성으로 지각하는 것은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에서는 성고정관념의 내용은 사실적 근거가 있는 반면에 다른 역할매락에서 지각될 때에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성고정관념은 남편과 아내라는 특정역할관계에서 역할기대를 판단준거로 삼아 대상을 판단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라는 특정 역할관계가 변화되면 그에 따라 남녀 대상에 대해서도 특성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정관념이란 항상 남자는 주도특성을 갖는 것으로, 여자는 친화특성을 갖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즉, 남녀의 특성을 고정된 특성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남녀의 특성을 고정된 특성으로 지각하는 것은 주도특성 혹은 친화특성을 남녀의 개인성향으로 지각할 때 가능한 것이다.

앞서 인용한 Eagly와 Steffan(1984)연구에서 볼 때 그들은 남녀의 역할관찰에서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기원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성고정관념은 남녀의 직업역할에서 보여진 행동특성을 남녀의 개인특성으로 지각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한가지 의문점은 왜 남녀의 역할특성을 역할특성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남녀의 개인특성으로 지각하게 되었는가?하는 것이다.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형성된 기원을 설명하는 관점이 되기 위해서는 역할행동을 개인특성으로 지각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한 역할관찰로서는 역할행동을 개인행동으로 지각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서는 이에 관한 설명을 간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특정 역할수행에서 비롯된 행동을 개인의 성향으로 지각하게 되는가? 사회에는 남

편과 아내, 주인과 노예, 부모와 자식, 교사와 학생, 선배와 후배와 같은 상호 반대의 역할로 규정되는 역할관계가 있다. 이런 상호규정된 역할관계에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개인은 역할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된다(Tajfel & Turner, 1986). 예를 들어, '나는 남편이다'로 동일시하게 되면 상대 또한 '너는 아내다'로 동일시하게 된다.

역할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곧 개인으로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역할행동 또한 개인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의 역할행동 또한 개인의 의지의 산물로 지각되는 것이다. 이수원(1994)은 자신의 역할행동을 개인 성향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 또한 개인성향으로 투사하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자아중심성(social egocentrism)'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특정 역할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회적 자아중심성으로 인해 역할행동이 개인성향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할관계가 변화되어도 남녀의 특성은 항상 고정적인 특성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여자인 A를 볼 때에는 '다정하다'(친화특성)고 지각되지만, 회사 상사가 A를 볼 때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남편은 부부관계에서 오는 역할기대를 갖고 A를 보기 때문에 A가 갖는 많은 특성들중 친화적 특성만을 선택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한편 회사상사는 A를 부하직원으로서 똑똑하고, 적극적이기를 기대하고 A를 보기 때문에 A의 많은 특성중 적극적이지 못한 특성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남편과 아내 역할관계에서는 현재의 자신이 보고 있는 A의 모습이 그의 성향 혹은 실체로서 지각되어 다른 역할관계에서도 항상 A는 '다정하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로 지각하는 것이 고정관념인 것이다. 결국, 고정관념은 특정 역할관계에 몰입되어 자신이 역할상대를 특정한 역할기대에 따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데서 야기되는 지각적 오류로 볼 수 있다.

이수원(1994)은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특정 역할관계의 맥락에서 벗어난 탈맥락화된 지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란 특정 역할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할관계에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볼 때 남편-아내 역할관계나 상사-부하역할관계에서 벗어난 관점에서 그 대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탈맥락화하여 대상을 지각하게 되면 역할에 따라 그 대상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특정 역할에서 보여진 대상의 모습이 그 개인의 실체로서 보지 않게 된다. 앞의 예에서 볼 때 A의 특성으로 보인 '다정하다'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특성이 그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역할관계에서 대상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 그 대상이 가진 역할특성과 개인특성을 분리하여 지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역할과 개인의 분리가 일어난다. 역할과 개인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다양한 역할속에서 보여진 대상의 모습속에서 이들이 가진 공통적 특성을 추출하여 보는 추상화(abstraction)가 일어난다. 대상의 특성을 추상화하여 볼 수 있게 되면 특정 역할맥락에서 보여진 대상의 역할특성을 더 이상 개인의 성향으로 지각하는 고정관념의 오류는 범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역할관계에 따라 대상의 특성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즉, 탈고정관념화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고정관념 내용의 사실적 근거에 대한 대립적인 논쟁을 역할맥락화된 지각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 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에서 대상을 지각하게 되면 역할기대에 따라 대상의 특성을 지각할 때에는 고정관념의 내용은 사실적 근거가 있는 반면에 특정 역할관계에서 벗어나서 볼 때에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의 내용이 형성된

기원을 역할맥락화된 지각에서 오는 역할기대 때문에 고정관념의 내용이 형성된 것으로 가설화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정관념의 내용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Eagly와 Steffan(1984)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즉, 고정관념이 형성된 기원을 인지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관념의 내용의 기원을 설명하는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역할맥락화 가설에 따라 역할기대와 특성추론을 통해 고정관념의 내용을 빈도로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역할기대와 고정관념 내용간의 상관을 측정하진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역할기대와 고정관념의 내용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특정 역할관계에서 오는 역할기대가 고정관념의 내용을 형성한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그러나 사회에서 보여진 수많은 고정관념의 내용은 특정 역할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역할관계가 없기 때문에 역할기대 또한 측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역할관계로서 설명되지 않는 고정관념의 경우에는 이 연구의 가설이 적용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가설이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준(1996). 성역할 정보처리의 발달과정:범주주도적 처리에서 특성주도적 처리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김태준, 이수원(1994). 감정적 처리에서 인지적 처리로: 내/외집단 성원의 재범주화 및 탈범주화의 효과.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교육논총*, 3권 1호, 43-72.
- 이수원(1994). 사회적 자아중심성: 타인이해에서 성향주의의 원천. *한국심리학회지:일반*, 13권 1호, 1-38.
- 이수원, 김태준(1990). 사회적 역할이 사회적 사건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5권 1호, 10-23.
- 이수원, 박영석(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태도차원의 변형생성과정, *사회심리학연구*, 4권 1호, 155-181.
- 이해경, 이수원(1994). 사회적 범주화, 가치 선호 및 내집단 편애. *한국심리학회지:사회*, 8권 2호, 108-123.
- 이해경, 이수원(1996). 성고정관념의 감소: 재,탈범주화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권, 43-62.
- 이해경, 이수원(1998). 사회적 범주화가 인상통합양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151-167.
- 정진경(1987). 성역할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3권, 132-160.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agly, A. H. & Steffen, V. J. (1984). Gender Stereotypes stem from the distribution of women and men into social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735-754.
- Filardo, E. K. (1996). Gender Patterns in African American and white adolescents' social interactions in same-race, mixed-gend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1-82.
- Gaertner, S. L., Mann, J., Murrell, A., & Dovidio, J. F. (1989).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39-249.
- Hilton, J. L. & Darley, J. M. (1991). The effects of

- interaction goals on person perception.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4, pp. 235-26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Hoffman, C. & Hurst, N. (1990). Gender Stereotypes: perception or Ration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197-208.
- Jones, E. E. & Thibaut, J.W. (1958). Interaction goals as bases of inference in interpersonal perception. In R. Tagiuri & L. Petrullo(Eds.), *Person percep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pp.151-178).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atz, D. & Braly, K. (1933). Racial prejudice and racial stereotyp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8, 280-290.
-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American values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893-905.
- Lippman, W.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Harcourt & Brace.
- Michael, C. M., Teresa, P., & Lauren, M. (1996). Status, communality, and agency: Implications for Stereotypes of Gender and oth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25-38.
- Oakes, P. H., Haslam, S. A., & Turner, J. C. (1994). *Stereotyping and social reality*, Blackwell, Oxford, U.K. and Cambridge, U.S.A.
- Smeddly, J. W. & Bayton, J. A. (1978). Evaluative race-class stereotypes by race and perceived class of subj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530-535.
- Tajfel, H. (1969). Cognitive aspects of Prejudice. *Journal of Social Issues*, 25, 79-97.
- Tajfel, H. & Turner, J.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hip*(pp.7-27). Chicago, IL: Nelson-Hall.
- Turner, C.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Oxford: Blackwell.

Intergated View of 'Kernel of Truth' Debate on the Content of Gender Stereotype: In the Perspectives of Role-Contextualization

Hae Gyoung Lee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view integratively the debate of factual basis('kernel of truth' debate) on the content of gender stereotype. According to theory of role-contextualization, the content of gender stereotype appears when people perceive other's traits on the basis of role expectation originating from the role relation of husband or wife as judgment criterion. So, content of gender stereotype(male is agentic, female is communal) has factual basis because the traits of male and female is perceived in role relation of husband-wife. Accordingly, in this research, two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o testify the effects of role-contextualization on the content of stereotype. One is that being contextualized in role, people use role expectation as judgment criterion. Another is that being contextualized in role, people perceive more selectively characteristics consistent with role expectation. To test these, gender role contextualized condition and race role contextualized condition were manipulated. The role of husband or wife was respectively given to subjects in gender role condition, and the role of master or slave was respectively given to subjects in race role condition. In two conditions, the role expectation was measured by impression judgment and the contents relevant to gender stereotype and racial stereotype were measured by inferring their traits. In result, the two hypotheses were supported. First, according to role-context, the tendency using role expectation as judgment criterion was increased. Namely, agentic values and communal values were used as judgment criterion in gender role condition, and protestant ethics values and considerate values were used as judgment criterion in race role condition. Second, according to role-context condition, the traits consistent with role expectation were more biasly inferred.